



時計塔

SIGETOP



2009년 10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6권 4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李成春 편집위원: 李惟贊 徐亮 盧在煜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편집인: 金炳哲 李元澤 徐仁錫 許善行

The 27 th 2010 Annual Convention March 17(Wed) ~ 21(Sun), 2010

Disneyland Resort: Paradise Pier Hotel



Paradise Pier Hotel Registrations Information

1717 South Disneyland Drive, Anaheim, CA 92802

Room Rate: \$139.00 no later than 2/17/2010, the cut off date.

By Internet: <https://resweb.passkey.com/go/seoul2010>

By Phone: 714-520-5005 Fax: 714-520-7097

Golf:

Tustin Ranch Golf Club, Strawberry Farm Golf Club, Aliso Viejo Country Club

Travel Assistance:

Disney Land Shuttle bus available from LAX and John Wayne air port Every 15 min.

To Purchase Tickets:

Below is the link fo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Reunion Ticket Store:

<http://www.disneyconventionear.com/GPSC10A>

Tickets are valid from 3/14/2010~3/27/2010. Twilight Ticket and 1Day/1Park Ticket are NOT valid on 3/21/2010.

Ticket Store closes at 9pm PST on 3/13/2010

2009년 12월 30일까지 동창회 본부로 등록하시는 동문들께서는 등록비의 10%를 절감해 드리려합니다.
서부의 온화한 기후속에서 골프도 즐기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조트인 디즈니랜드에서 개최되는 컨벤션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2009-2010 제1차 이사회 초록

기록 : 박진국(71) 총무



일 시 : 2009년 10월 3일(토) 오후 6시
 장 소 : Oxford Place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참석자 : 손영진(62) 김택수(63) 권영조(63) 김태웅(63) 조동준(64) 이흥표(64) 이성춘(70) 이석규(70) 이희영(71) 박진국(71) 차민영(82) 조형기(92) Mrs. 안병일(69)
 Proxy : 노용면(55) 이운순(58) 김은섭(59) 김병석(59) 이재승(61) 조명호(62) 이상무(62) 한기현(63) 추재욱(63) 이유찬(64) 한태진(64) 조의열(66) 이명희(66) 최영자(66) 최순채(66) 이태석(67) 한영수(67) 윤효운(69) 오동환(71) 곽승용(71) 정인용(71) 오용호(72) 임준형(73)

1. 박진국 총무 (53명 중 13명 참석자와 23명의 Proxy, 4명 겸직)의 개회 선언
2. 2008-2009 제2차 이사회 초록을 수정 없이 동의, 재청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
3. President Report
 - a. 2010년 3월 17일(수)-21일(일)에 열릴 Convention 준비가 잘 진행되어 Disney Land Paradise Pier Hotel의 장소 계약과 실무가 끝나고, Scientific Session 의 연사 25명이 확보 되었으며, 3일간 Golf Plan이 확정했음을 보고.
 - b. Keynote speaker를 하실 초청 인사를 미국과 한국에서 물색 중이며, 주제는 Obama의 보건 개혁 정책, 예방의학, 한국의 의료 개방 등이 될 예정입니다.
 - c.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손영진 위원장) 미팅에서 금년 합춘의학상 연구기금 후보로 김광식(71) 동문, 합춘 대상에 후보로 유태준(59) 동문을 선정함. 이사회 인준후 본국 동창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 김택수 동문의 제안으로 동일인이 비슷한 연구 실적으로 다시 후보자 신청을 한 분은 두 번 추천 안 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
 - d. China Medial Board Fund

남가주 지부 소식

2009년 8월 22일 남가주 서울 의대 동창회에서는 선후배 친교의 밤을 가졌습니다. 오후 6시30분에 Oxford Palace Hotel 에서 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서울대 신경외과 백선하교수의 Gamma Knife에 대한 강연이 30분간 있는 후 풍성한 저녁 식사와 황규원의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와 유수경 가야 전통 무용단의 고전 무용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모든 동문에게 서울 대학 병원과 협력 체제로 진료하는 "서울대 진료 협력 네트워크 위촉 증명서"도 수여하는 아름답고도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2009년 9월 26일(토) 서울대 총 동창회 주최로 Community Service가 LA 동양 선교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단과 대학별로 전문인들의 사회봉사의 날이었습니다.



각 파트로 나뉘어 의사, 변호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임상심리사들이 무료봉사를 해주었습니다. 남가주 의대동창회에서는 조한원(63) 최정호(67) 김홍서(69), 이석규(70), 박진국(71) 박상호(71), 김성환(71) 동문이 진료를 맡아주어 많은 교민들의 의료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 서울대 안과 교수 박기호 교수의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한 강연과 함께 서울대학 병원 LA오피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 회장 김성환

축하합니다

김중권(69) 동문의 딸 Janis와 황현상(61)동문의 아들 Andrew가 지난 8월 22일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Garden City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김태웅(63) 동문부인 오순자 씨 개인전

주류화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순자씨의 작품 유니티(Unity)가 팜 스프링스 뮤지엄에서 영구 소장돼 지난 5월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시되고 있다.

1996년에 제작한 유니티(110 x 221 x 8 인치)는 18개의 입체 패널로 이루어진 대형 작품으로 알루미늄 표면을 부식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유기적인 패턴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d Hoc-committee가 구성되어 구경희(65) 동문을 Chair로 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committee에서 보고 된 사항과 질문서를 본국 동창회와 의대에 보냈는데 동창회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므로 대답 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고 의대에서는 아직 답이 없음.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계속 Agenda로 다루기로 했음.

4. 재무 보고 (박일우 재무 불참)
 290여명이 회비를 납부하여 \$35,700, 전 회계연도 이월금 \$10,000 (나머지 잔액은 정산이 끝나는대로 이월 할 것임), Donation \$2,900과 Convention Donation \$ 5,610이 입금 되었음. 현재 잔고 \$43,000.00
5. Committee Chairs Report
 - Finance(이흥표 위원장): 전 chair인 최순채(66)동문의 재정 감사의 "Non-profit corporation"은 profit을 만들지 못하면 Audit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Review.
 -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손영진 위원장): 금년 합춘의학상 연구기금 후보로 김광식(71) 동문, 합춘 대상에 후보로 유태준(59) 동문을 선정함.
 - Scholarship (여천기 위원장 불참)
 LA의 한국, 중앙일보에 장학생 선발 광고 게재. 서울의대에 미주 동창회 장학금 후보자 요청. 해마다 늘어나는 Scholarship Fund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감. 장학금이 한국인에게만 국한되어도 미국 내에서 불법이 아니다(흑인들도 흑인 만이 장학금의 수혜자인 예가 있다)라고 함.
 - Scholarship Fund Management (이명희 위원장 - 서면보고)
 2009년 1월 1일자로 \$289,399 였으나 9월 30일에 \$332,438로 증가 하였음. Bond 46%, Stock 54% 임.
 - Advisory & Exchange (권영조 위원장)
 "참여"가 문제이며 모든 이사들이 대다수의 동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 Green Project (백시환 위원장 불참)
 - Silver Project (조명호 동문 - 서면보고)
 금년도 두 가지 해외 여행 계획(발칸반도, 향가리 와 북유럽 여행) 보고.
 - Convention (이석규 위원장)
 이석규 위원장이 CME chair를 겸하고 있는데 강사, Topic, Abstract와 CME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실은 Speaker가 넘치는 현상도 일어났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음은 우리 동문들과 자제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라고 깊은 감사를 표명. 강사들에게 Honorarium을 못 드리는 대신 감사장을 증정하기로 결정.
 - Golf Tournament (Mrs. 안병일)
 골프장 선정과 게임 진행 등 모든 것이 거의 준비 되었음을 보고
6. New Business:
 - 조동준 전 회장께서 동창회가 Globalization 시대에 맞게 관계를 확대해서 본국 동창회와 미 주류와 우리 2세대들과도 교류하고 Convention 이 외의 다른 사업에도 뛰어 들고 임원들과 시계탐에도 동참하고 영어 원고로 더 넓게 교류하는 memoir style의 advice를 해 주심.
 아주 진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후 8시30분에 폐회

질감으로 공간과 무한 존재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오순자씨는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과 한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24회 이상의 개인전을 갖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희연(72)동문 네 번째 개인전시회



메릴랜드 주 포토맥에 거주하는 정희연(72)동문이 맨해튼 첼시에 위치한 Phoenix 갤러리에서 네 번째 개인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동문은 방사선과 전문의로 메릴랜드 주에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어떤 곳에서든지 문득 그림을 그리고 싶게 하는 소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정동문의 개인전을 모조록 방문하셔서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he spark that inspires me to paint can come from almost any where, ranging from nature, music, seeing a De Kooning, to something as mundane as torn posters on the weathered wall of an obscure building. As an avid traveler, I am particularly inspired by the distant memories of the places I have visited.

With layers upon layers of deliberate and accidental marks, complex and simple spaces in composition, application and scrapping off of paint, and embedded traces of failed experiments, my works are so relevant to the way of my being and a metaphor for my life - full of chaos and calm, misjudgements and adjustments, exuberance and restraint.

January 6 to January 30, 2010 / Hours: Tues.-Sat., 11:30am - 6:00pm
 Phoenix Gallery
 210 Eleventh Avenue @ 25th Street, Suite 902, New York, NY 10001
 (212) 226-8711 website: www.heehyounchung.com

정재욱(고 송관호 64동문 부인)씨 수필집 2권 동시 발간



뉴욕에서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욱(고 송관호 64 동문부인)씨가 '별 하나에 당신 별 하나에 나' 와 '여름이 되면 티티새는 울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두 권의 책을 발간했다.
 특히 '별 하나에 당신 별 하나에 나' 는 송관호 동문이 암 진단을 받은 2007년 8월 8일부터 영원한 이별과 그 후의 에필로그에 이르는 1년여의 기간을 두고, 하루 이를 걸러서 지속적인 인내와 사랑으로 쓴 절박하고 처절한 병상일지이며 그야말로 애절한 사부곡이라 할 수 있다. .

조의를 표합니다: 노병림 동문(47, 서울대 1회)께서 지난 8월 15일 향년 86세의 나이로 작고하셨다. 오랫동안 Wisconsin 주에 있는 Tulane University Medical School에서 cancer research를 하셨다.

Green Project Corner

추석이 끝나고 어느덧 추수감사절에 접어드는 이맘때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1999년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는, 새로 임명된 Green Project Chair 백시환(99)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24일 대학로 진아춘에서 MEXIM 회장인 전인표군과 장학금 지원학생 6명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너무 의젓하고 진지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각자 자기의 포부를 밝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부학장이신 박웅양 교수님도 잠깐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김규한 교수님, 박웅양 교수님을 모시고 2009년 서울대 의대 해외 선택실습 경험발표회 가졌다는 소식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다 미국과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서울대 의대 동문 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맺은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Green Project Chair로서 우리 서울대 의대 동문이 미국에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een Project Committee Chair 백시환(99, 남가주)

2009 서울대의대 해외 선택실습 경험 발표회

일시: 9월 30일(수), 저녁 6시 30분
장소: 천연물과학연구소 지하강당
주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주관: 동아리 MEXIM
후원: SNU Global Health Forum

을 다녀온 곳에 대한 기본 설명과 함께 인턴쉽의 목적과 인턴쉽의 일정 및 하루 일과를 소개하고 앞으로 인턴쉽을 가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었다. 또한 발표자마다 인턴쉽과 관련된

사람들의 연락 정보와 함께 자신의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첨부하여 다녀온 사람들과 앞으로 갈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인턴쉽 발표회는 예년과 다르게 동아리 MEXIM과 서울대학교 국제보건포럼이 함께 준비하였으며 작년에 문제로 지적된 긴 발표회시간으로 인한 집중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Session을 3개로 나누고 각각의 발표시간을 포스터에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이 원하는 session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발표회였으나 내년에는 해외 선택실습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와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보다 확대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09년 9월 3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천연물과학연구소 지하 강당에서 서울대 의대 동아리 MEXIM 주관, 동아리 서울대학교 국제 보건포럼 후원으로 서울대의대 해외 선택실습 경험 발표회가 있었다. 이날 발표회는 3가지 session으로 이루어졌는데 Session 1에서는 의대부학장 박웅양 교수님의 인사말과 함께 MEXIM 동아리 소개, 인턴쉽 지원과정 소개 및 미국 인턴쉽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Session 2에서는 미국 이외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 경험한 해외 인턴쉽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session 3에서는 국제보건인턴쉽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국제보건포럼 동아리 소개와 함께 세계보건기구 인턴쉽, 국제 백신 연구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인턴쉽이 소개되었다.

이날 발표회에는 의대부학장 박웅양 교수님과 동아리 MEXIM 지도교수님이신 김규한 교수님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셨고 많은 의대 본과생들이 참석해주었다. 특히 내년엔 해외 선택실습을 하게 될 본과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몇몇 관심 있는 예과 및 본과 1,2학년 학생들도 참석해 발표를 경청하였다.

인턴쉽 발표의 내용은 주로 인턴쉽

- Session 1: Introduction & USA internship
- 1. 인사말 & 학교지원 해외 인턴쉽 - 의대부학장 박웅양 교수님
- 2. MEXIM 소개 - 회장 전인표
- 3. 인턴쉽 지원과정 및 예일대학교 인턴쉽 - MEXIM 부회장 박재영
- 4. 미국 인턴쉽 컬럼비아 대학교 - 이주영
미네소타 대학교 - 오규수
템플 대학교 - 박지홍
하버드 대학교 - 최홍운
- Session 2: Other Internship & Volunteering
- 1. 러시아 인턴쉽 - 권순효
- 2. 일본 인턴쉽 - 김대곤
- 3. 유럽 인턴쉽 - 박보나
- 4.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 나권중
- Session 3: Global Health Internship
- 1. 서울대 국제보건포럼(SNUGHF) 소개 - GHF 부회장 이진선
- 2.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인턴쉽 - 전인표
- 3. 국제백신연구소(IVI) - 이승현
-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인턴쉽 - 고지원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을 다녀와서

오백록 (의학과 4년)

어느새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본과 4학년이 되어버린 나는 지난 여름에 미국 뉴욕에 위치한 NYP 병원 안과에서 임상실습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내가 방문했던 병원은 CUMC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교육병원인 NYPH였다. 영어울렁증이 라고 생각될 만큼 영어에 자신이 없었던 나는 분명 좌절감을 느낄 것이 뻔 한 그곳에 가기 전까지 과연 내가 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이 병원과 미국에서의 시간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앞으로 나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경험이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사람들 그리고 NYPH의 연구, 교육

나의 preceptor는 시리아 출신의 의사 Dr. Al-Aswad 선생님이었다. glaucoma가 전공인 그분은 시리아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USLME를 통해 미국의 사면허를 딴 뒤에 MEEI에서 Glaucoma에 대한 3년간 한 뒤에 안과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하였다.

또 한 명의 기억이 남는 faculty는 소아사시전공의 John Flynn 선생님이었다. 정말 너무나 푸근한 할아버지의 느낌으로 정말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외모의 소유자였는데, 매일 아침 resident meeting때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해주시는데, 환자를 정말 너무나 생각하는 진짜 의사이자 친절한 선생님의 느낌이었다.

병원에 간 첫날 내가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실 안과레지던트들이었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안과나 외과 같은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과에는 인종차별이 있어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일단 들어가더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 힘들다고 들었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총 9명의 레지던트 (연차당 3명씩 레지던트 3년) 중에 아시아인은 5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병원 첫날 나는 CUMC 학생들과 아침 일찍부터 강의를 들으며 인사를 하게 될 생각으로 설렘었다. 하지만, 이내 6월에는 학생들이 병원실습이 없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다. 첫째로는 의대학생들을 볼 기회가 없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덩달아 각종 lecture와 conference가 대부분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5명 정도의 학생들은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MD-PhD로 본2를 마치고 안과 lab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아직 임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외래도 열심히 들어오고, 수술장에서 매우 적극적인 그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연구하는 주제가 무엇이나 몰았을 때 너무나 자신감 있게 자신의 하는 연구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역시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활동 (병원 안에서)

안과는 수술을 위한 당일 입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외래를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안과실습 또한 주로 외래에 배정되었다. 매일 아침 8시에 레지던트들과 함께 Dr. Flynn을 만나서 전날 당직이었던 레지던트와 consult를 나갔던 레지던트가 환자 case에 대해서 보고를 하

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discussion을 하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수술방에 올라가거나 지하외래 또는 Dr. Al-Aswad 의 glaucoma 외래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glaucoma 외래가 많이 익숙해지면서 다른 cornea와 retina 외래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인사를 하고 며칠씩 참관해 보기도 하였다. 지하외래실에서는 기본적인 질환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단순한 노인이나 굴절력 이상부터 시작해서 건성안, 또한 EKC같은 감염질환, 그리고 물론 glaucoma나 AMD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나는 레지던트 옆에 앉아서 그가 환자를 보는 것을 지켜보거나 혹은 중간 중간에 질문을 하기도 하였고, 몇몇 질환이 간단해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해보기도 하였다. 보통 오전이나 오후 중에 하루를 그렇게 지하외래실에서 보내면 나머지 반나절은 위층에 올라가서 Dr. Al-Aswad의 외래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Dr. Al-Aswad는 환자를 볼 때마다 내 소개를 대신 해주면서 안과 검진을 한 후에는 반드시 나도 한번 보게 해주면서 어떤 것이 관찰되는지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칭찬해주고, 틀렸을 때는 연습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격려해주면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외래는 진행되었다. 덕분에, 렌즈를 통해서 optic disc를 보는 것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붙게 되었고, glaucoma의 약이나 부작용, 처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히게 되었다.

일주일의 하루는 기본적으로 수술방에서 다양한 수술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응급이 생기거나 그냥 보고 싶은 수술이 있으면 Dr. Al-Aswad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술 방에 올라갈 수도 있었다. 수술하는 내용들 자체는 한국에서 안과실습을 할 때와 아주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3개의 수술 방에서 하루 평균 4개 정도의 수술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여유 있게 수술을 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cataract수술인 PE PCL은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훨씬 능숙하게 신속하게 수술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의 미국에서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수술 방에서 있었다. 계속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있다가 한번은 Dr. Al-Aswad가 scrub을 세워주셨다. 한국에서는 eyelid와 사시수술에서만 scrub을 서브서 microscopy를 직접 볼 기회가 없었는데, Ahmed op. 에 scrub을 들어가게 된 것이다. 모니터화면에 크게 확대된 안구만 보다가 microscopy를 들여다본 순간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게다가 직접 irrigation과 suture cut를 시켜주셨는데, 처음에는 microscopy 시야에서 깊이에 공간감이 익숙지 않자 선생님이 직접 손을 잡고 리드해주시면서 나의 scrub를 도와주셨다.

외래와 수술방이 익숙해진 뒤부터는 병동consult와 응급실 consult에 부지런히 따라다녔다. 기억에 남는 consult는 이유를 알 수 없는 hepatic failure환자에 대해서 r/o Wilson disease를 위해서 안과 consult가 나왔던 사람인데, 간성훈수가 온 환자와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consult 나간 레지던트는 애를 먹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내과병동을 돌면서 모두 1인실로 구성된 병실을 (다음면에 계속)

프라임타임 쇼



강창욱(61, 메릴랜드)

KBS 방송회사 제작 단편 연속극 '원효대사'를 볼 기회가 며칠 전에 있었다. 그 의상이나 장치들을 봐서 아마 1970년 말경에 제작한 것 같다. 화면이 유치할지는 몰라도 배우들의 연기는 뛰어났다. 우리 부부가 프라임타임에 한국방송이 몰신 나는 비디오를 오랜만에 보게 되었다. 다리를 쭉 뻗고 과일을 먹어가면서 즐겼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그의 강박적으로 해설이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 이것 전에 봤어요?"하며 묻는다. 이 비디오를 본 적은 없으나 춘원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몇 번 읽어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 작품은 이광수의 소설 원효대사를 희곡화 한 것이기 때문에 책 읽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내가 소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그러니까 1945년 8월에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여 이차대전이 끝나자 나는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를 보통학교라고 했다)를 다녔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조선 학교를 가야 했다.

9월 중순에 학교가 개학을 하자 선생들은 우리가 조선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일본말 조선말을 섞어가며 가르치느라 맘을 빼었다.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또 형들이 쓰

던 조선말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말(표준말)은 너무도 차이가 있었다. 고구매를 고구마라 하고 뺨을 뺨이라 하고 댕장을 댕장찌개라 하고 능금을 사과라 하고, 뭐 한이 없다. 국어시간에 폭소 나오기가 보통이다. 표준말이 우리 경상도 아이들에게 우스꽝스러워서 웃었지만 또 금방 배운 것을 발음하지 못해 찢찢대는 아이들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웃기게 마련이다. 표준말 발음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힘이 들었다. 경상도사람이 "쌀" 발음을 하는 것이 참 힘들다. '얼음'이 '을엄'이 되고 해서 그 발음들이 쉽지 않았다. 물론 이런 것을 이겨 내는 데는 복습이 필요하지만 집에서 똥개 가르칠 사람도 별로 없다. 부모님도 표준말을 쓰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옛적 공부 방식은 무조건 글을 많이 읽는 것이었다. 이때 우리 아버님이 생각 해내신 것이 책방에서 책을 한 두 권 사 오셔서 날더러 아버지 앞에서 하루 한 시간씩 읽으라 하셨다. 많이 읽다보면 저절로 익히게 되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이다. 그때는 동화책이 어린이를 위한 책이 책방에 드물었다. 이웃 책방에 일본 책을 다 들어내고 나니 몇 권의 책이 책꽂이에 있었지만 대부분이 신소설이라는 것이며 대개가 유치한 색깔의 그림으로 덮인 표지가 기억난다. 그래서 아버님이 고른 책이 '원효대사'였다. 이 책의 표지는 엷은 회색에 元曉大師 春園 李光洙 著 하는 것과 출판사 이름을 밖에 아무것도 없는 단순하면서 책의 무게를 보였다.

어머니가 부엌정리를 하시고 방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 책을 읽는 시간이 된다. 아버님이 정좌하시고 나는 그 앞에 꿇어앉아서 책을 들고 읽었다. 마치 옛사람들이 아버지 앞에서 천자문 공부하듯이. 처음에는 바느질 하듯 어머니도 귀역이시다가 바느질 꺼리를 놓고 경청하신다. 그런데 내 발음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지적을 하신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쉬려고 하면 좀 더 읽어라 하시었다. 나는 꼭 아버님과 어머니께서 내가 읽는 이야기에 재미를 얻으신 것을 알았다. 내 공부 한다는 목적은 뒷전으로 미루어 버렸다. 그런데, 그것도 오랫동안 읽을 수 없는 것이 그때만 해도 절전 시기라 전기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저녁식사를 하고 나면 고작 한 시간 남짓 전기의 혜택을 본다. 저녁 설거지가 끝나면 어머니는 부랴부랴 방에 들어오셔서 내가 책 읽기 시작하는 것을 종일 기다리신 것처럼 뚝뚝 즐거워하시는 것을 알았다. 달포가 지나서 상권이 끝나자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하권 사오라고 독촉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버님도 지체 없이 하권을 사오시고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나도 은근히 긴 이야기를 읽는 것이 재미있고 구수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그 시간이 싫지가 않았다. 맛있는 간식은 금상첨화다. 그래서인지 이날 저녁에도 기억에만 남아 있는 흥시 맛, 군밤의 향기, 찐 고구마 냄새의 기억이 구수한 향수를 자아낸다. 하권마저도 한 달 안에 끝이 났다. 아버님과 어머니가 여간 섭섭해 하지 않으셨다. 마치 사랑하는 식구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처럼 섭섭해 하시는 표정이 역역하였다. 술

직히 어린 내 맘에도 섭섭하여 어쩔지 아버님과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다. 처음에는 다른 책을 생각했으나 그때에 나온 대부분의 책은 연애이야기와 신식 남녀관계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아버님은 내가 그런 책을 읽는 것을 경계하신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내가 원효대사를 다시 읽는 것이었다. 그 것을 제안 하였더니 두 분께서 손뼉을 치면서 반가워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처음부터 읽었다. 이때는 제법 억양도 넣고 쉴 곳에 때맞추어 쉬는 것도 하면서 여유 있게 읽었다. 세 번째 읽었는지는 기억이 삼삼하다. 그 뒤에 아버님께서 춘원의 '이차돈의 사'를 사오셨다. 책방 주인이 '원효대사'를 즐겼으면 이 책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샀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집 프라임타임 쇼가 '이차돈의 사'로 계속 되었다.

이렇게 해서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연유로 해서 쇼가 끝이 났다. 그 자리에 미국의 소리 라디오 방송이 차지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 춘원 이광수선생은 어렸을 때 소년천재였었던 것으로 안다. 다섯 살에 벌써 국문과 천자를 깨치고 외조모에게 "달격정" "소대성전" "장풍전" 등을 읽어드리고 상금을 받으셨다고 하니 우리나라 옛적에 이런 풍습이 있었던 모양이다. 텔레비전회사는 이 저녁시간이 돈벌이가 잘되는 값진 시간으로 불지 모르나 프라임타임은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기며 한자리에 모여 답소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값진 시간이기도 하다. 패밀리 프라임 타임이라고 할까.

<전면에서 계속> 구경하면서 서울대 병원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소아과 Seizure환자를 consult하러 갔을 때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각 병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도 눈에 띄는 모습이 었다. 어찌했던 내가 consult를 가는 대부분은 사실 별 다른 finding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레지던트들도 내가 따라오면 negative finding가 나온다고 신기해했다.

NYPH의 응급실에 처음 갔을 때의 느낌은 역시 어느 병원과 비슷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기계음, 한쪽에는 NYPD가 모여 있었고, 우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피 흘리는 사람들... 나와 한 레지던트는 너무 어지러워서 정신이 없다는 한 아주머니를 만나러 갔다. 이미 신경과에서 신경학적인 검진을 끝낸 상태였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안과를 부른 것인데, 9 gaze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관찰된 것처럼 보였는데, 레지던트와 discussion한 결과 별 특징이 없는 것을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나도 이미 내 의견을 마음껏 피력하는 문화에 익숙해져버렸던 것을 느끼고 새삼 보람이 느껴졌다. 그리고 consult를 들고 나면 다음 날 아침 레지던트 미팅에서 consult를 따라간 환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도 해보았다. Conference를 통한 case 발표라기보다는 약식의 발표였지만, 나에게 큰 경험이 되었고,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읽은 것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들었던 느낌은 해외연수를 나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유롭게 미국병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졸업하고 나면 오히려 너무나 힘들어질 뿐더러, 나중에 설혹 USMLE를 보고 미국에서 의사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야를 넓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떤 진료를 하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 느껴보는 것은 나중에 한국에서 의사를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다. 게다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의료도 글로벌화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병원이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에 있는 병원도 세계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의대생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올 것을 추천하고 싶다.

사실 처음에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얻지는 못하였다. 미국의 진료와 연구,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인사들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었다. 그 자체로도 나에게 엄청난 충격들이었고, 신선함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진로에 대한 문제, 전공에 대한 문제, 연구에 대한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못하였다. 어쩌면 그 문제들은 원래부터 미국에 가면 답이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는지도 모르겠다.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높은 USMLE와 추천서, MD-PhD를 통해서 쌓은 연구경력과 논문을 가지고 경쟁하는데, 내가 연구경력 없이는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아직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나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고, 연구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커지게 되었다. 좀 늦은 감도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해서 훌륭한 의학자가 되어,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번 해외연수가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 있었음을 인정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시계탑 편집위원회 초록

- 일 시: 2009년 9월 23일 저녁 6시30분
 장 소: 거송 식당, 베이사이드 뉴욕
 참석자: 노용면, 김병석, 이희경, 이유찬, 허선행, 서량, 서인석
 Mrs. 노용면, Mrs. 이희경, Mrs. 이유찬, Mrs. 허선행, 황창근
1. 산뜻하게 출판된 시계탑 문집을 위해 애쓴 김병석 편집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에 게재된 신입회장 신입사에 거론된 시계탑의 문제점 및 개선할 점들에 극히 공감함. 지적된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거론된 풀타임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회장단 및 이사회 의 도움이 필요함.
 3. 시계탑 및 시계탑문집의 광고: 동창회 기금마련을 위해 의학에 관련된 광고를 허용하기로 중론을 모았음. 다음 이사회에 건의할 예정임.
 4. 원고 교정 및 승인
 5. 다음 모임은 동일장소에서 12월 16일 (세번째 수요일)에 가질 예정임.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내용:

-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가급적 1면이상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농담골목'에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양하는 원고: (1) 종교적인 내용
 (2)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인류의 문명 III

임 낙 중(59, 메릴랜드)

사슴들이 떼를 지어 마당에 나와 논다. 미국 시골에 살다보니 사슴과 더 붙어 산다.

가을이 되니 다람쥐들이 부지런히 밤을 불어다 땅에 묻어 겨울양식을 준비한다. 그 작은 머릿속엔 월동준비하는 지혜가 웬만한 사람보다 귀엽다. 최근에 사슴과 다람쥐가 환경오염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쩍 늘 것을 보니 인구폭발과 환경오염에 그들이 잘 적응하는 듯 한데 그들은 나처럼 지구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은 것 같아 부럽다.

사냥과 힘센 맹수들은 인간 등살에 씨가 말라가는데 오히려 힘없는 사슴과 다람쥐들이 번성하는 것은 약자생존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구 얘기로 돌아가 지구가 처음부터 지금 같은 아름다운 별은 아니었고 사십육억 년 전 원심분리 현상으로 태양에서 지구가 떨어져 나왔을 때 지구는 붉은 불덩어리였고 지구가 차츰 식어 지각이 형성되었으며 지금도 십내지 백 킬로미터 쯤 땅속에는 용암이 끓고 있다. 사십이억 년 전쯤 대양이 생길 때 육지는 지금처럼 여러 대륙으로 갈라지지 않은 한 개의 대륙이었다. 그 후로 지구가 여러 번 빙하기를 맞는데 가장 추웠던 팔억오천만 년 전과 육억삼천만 년 전 사이에 지구는 온통 눈과 얼음으로 덮여 외계에서 보면 한 알의 하얀 진주처럼 보였을 것이다.

빙하기가 있었다는 과학적 증거는 많으나 빙하기가 오는 원인은 여러 설이 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농도의 변화,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 태양열량의 변화 등이 유력한 설이다.

빙하기가 녹을 때마다 지구에 새 동식물이 생기고 번성하였다. 지각도 계속 이동하며 여러 대륙으로 갈라지고 약 오억 년 전에는 지금의 북미 대륙의 태평양 연안이 적도 근처에 동서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고 한다.

내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갔을 때 노출된 지층에서 바다조개의 화석들을 보았는데 그 높은 산이 한 때 바다 밑 이었다고 믿기가 어려웠다.

수억 년 전 지도가 있다면 지구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사는 동식물도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요약하면 지금 외계에서 보이는 주옥같은 지구가 한때는 붉은 불덩어리, 연기에 묻힌 화산 덩어리, 한 때는 눈과 얼음에 덮인 하얀 진주의 모습 등등으로 변화를 계속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약 만 년 전부터 인류가 집단생활을 시작하면서 Gene Pool이 커져 인류 진화에 가속이 붙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부안하고 싶은 것은 동식물의 분포, 그리고 이동을 화석의 연구로 진화가 과학적으로 수궁이 가는 부분만은 창조설을 믿는 분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진화도 예정하고 섭리하셨다고 생각하면 일부 진화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다. 공부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진화론을 반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만큼이나 발견된 화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진화의 연결성이 결립된 시대까지도 가설로 생물의 역사를 모두 진화론으로 설명하려는 기도도 무의미하다.

지구가 자전한다고 믿은 과학자들이 단으로 돌아붙인 중세기의 과오를

되풀이한다면 우리는 역사에서 아무 것도 배울 수 없고 한편 진화론을 완전한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는 정직한 사람이 못된다.

본론으로 돌아가 인류는 기구와 불의 사용 그리고 농업에 의한 생활의 정착과 안정으로 문화의 급성장을 이루었다. 약 오천 년 전부터 문자를 사용했고 그전에 이미 언어를 구사했는데 현재 육천여종의 언어가 남아 있으며 약 이천오백의 언어가 멸종의 위기에 처해있다.

국가의 정의에 따라 학자 간에 차이가 있지만 인류는 삼천여 년 전부터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최근 17세기에 과학혁명, 18세기 산업혁명 그리고 20세기 정보시대의 도래로 문화 발전은 더욱 가속이 붙었다.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후의 만년이란 세월은 Dinosaur가 지구를 지배했던 일억 육천만 년이란 세월의 일만 육천분의 일이라는 순간에 불과하지만 인류는 그의 종말을 걱정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도 아직 밀림 속에서 원시적 생활을 하고 있는 부족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 근본주의에 빠져 과학을 전혀 외면하는 광신자들도 많으며 독단에 빠져 자기네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적대시하거나 제거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서 인류가 한마음을 모아 대처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인류가 주체로 나서서 인류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제안하고 싶다.

내 나이 칠십이 넘은지 수년이 되었으니 내게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려있다. 실은 사후에 갈 곳이 어드메인지 걱정할 나이에 인류의 운명을 걱정한다는 것이 주제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자식 손자들이 걱정되어 그렇다고 해도 좋고, 인간에게는 이성, 사랑 자비 등등 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해도 변명이 되겠다. 동시에 증오 탐욕 분노 시기심 같은 나쁜 마음도 인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류의 운명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서론의 일부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성이란 무엇인지, 양심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현들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쓰여 있다. 이 말씀 가운데 형상이란 말은 육체적 모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리고 도덕적 본성을 말한다고 한다.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인간의 본성도 하나님을 닮아 선하기만 했다는 말이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신에 대한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타락했고, 저주를 받았으며 타락하고 저주받은 자손들을 계속 낳는다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붓다가 설한 자비는 산스크리트어로 Metta라고 하는데 Metta의 어원은 벳mitta라고 한다. 벳(mitta)의 뜻이 추상화되어 우정(metta)이 되고 사람 또는 자(慈)의 뜻을 지니게 된 것이다.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너희

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며 신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가르치는데 비하여 붓다의 자비는 우정과 같이 인간적이고 이성적으로 출발하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자가 남을 위해서도 울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同苦同悲하는 벗 즉 고통과 슬픔을 같이 하는 벗이라는 의미에서 자비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똑같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생기는 동정하는 마음이 자비인 것이다.

일본의 불교학자 마쓰다니씨의 설명을 소개한다.

"붓다의 길은 자기 자신의 내부 깊은 곳에 침잠하는데서 시작하고 이 침잠은 세계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진상을 통찰하여 그것에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남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불교의 자비는 인간적이고 이성적 판단에 호소하며 신에게서 오는 기독교의 사람과 대조적이다.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 남도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남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게 되고 남을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고 이를 佛心을 찾는 과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비심이라고도 한다는 것이다.

佛性은 自生佳佛性이라하여 모든 중생에게 있다고 설명하고 수행으로 찾아낸다고 弘出佛性이라고도 하며 마음을 닦아서 얻는다 하여 淨得佛性이라고도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에 빠진 어린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드는데 그 마음씨를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고 하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인(仁)과 같은 마음 때문이라고 해서 맹자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다.

유교의 철학적 바탕이 되어온 사단설(四端說)에 측은지심 외에 수오지심(羞惡之心)의 의(義), 공경지심(恭敬之心)의 예(禮), 시비지심(是非之心)의 지(智)가 포함된다. 仁을 이이라고 했는데 仁이란 사람답다는 뜻이고 사람은 착한 천성을 타고 났으며 仁을 실천하는 것을 도덕이라고 보았다.

仁은 자비, 사랑, 인간성, 동정, 우직함 그리고 도덕과 가깝다.

논어에 子曰性相近也 習相遠也라 했는데 번역하면 인간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는데 각자 습성이 달라서 악인도 되고 선인도 되어 서로 멀어진다고 공자는 말했다. 교육과 수양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평생을 두고 행하여야 할 마음가짐을 물었을 때 子曰基怒平 己所不懲 勿施於人이라고 공자는 답했다. 번역하면 그 것은 노(怒)이니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자는 인간의 도리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하여 天命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이 때 말하는 하늘은 기독교에서 쓴 유일신의 의미는 약하다.

순자는 人性을 心과 情으로 나누고 정은 희로애락과 싫다와 좋다는 선호를 말하는데 정을 좇아 행동하면 악으로 흐르기 쉽다고 했다. 그 때문에 사람은 心의 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性을 心과 情으로 나눈 것이 그의 성악설의 요지다.

Platon은 인간의 천성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고 했다.

선과 덕은 인간의 모든 소질과 능력을 발전시켜서 성취하는 조화로운 상태이며 플라톤은 이를 Areta(德, 또는 Virtue)라고 하였다.

관습과 법 등 사회적, 인간적 권위나 종교의 권위에 복종해서 얻는 덕

이나 선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런 덕은 궁극적으로 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플라톤은 신의 뜻이라도 객관적인 도덕적 타당성을 관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도덕 자율성을 강조했으며 인간을 검은 말(욕정)과 흰 말(기개)의 두 말을 붙이꾼(이성)이 몰고가는 마차에 비유했다.

Epicures과의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이 진정한 선이라고 했다. 주의할 것은 이들이 말하는 쾌락은 시중에서 말하는 쾌락과는 거리가 있다. 덧없는 순간에 충동을 따르든가 인과 관계를 살피는 지혜 없이 쾌락을 쫓는다면 결코 선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쾌락의 추구를 권했다.

신 영혼 사후에 시련 등은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다.

자신의 이성으로 자기를 지배하고 산다면 내면세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

스토아학파인 Diogenes와 Seneca 등은 하늘이 무너져도 의무를 다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자신의 행복이나 개인의 고락을 염두에 두지 말고 우주의 원리와 목적론적 방향에 따라 이성적으로 의무에 충실하라고 했다.

선한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며 의무를 판단하고 자연을 따라 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성과 의무를 너무 강조하는 사회는 벌과 개미의 사회와 같아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 침해되기 쉽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성과 의무가 사회공동체에 필요한 덕이지만 人爲와 無爲가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억제하는 의무의 강조는 전체주의나 제국주의에 흐르기 쉽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용의 덕과 조화는 여기에서도 이루기 어려운 과제다.

나는 전체주의를 겪어보고 싫어했던 만큼 현 미국사회의 일부에서 보는 개인주의의 병폐도 염려한다.

이 장에서 양심 이성 선악 그리고 도덕 등에 관해서 선현들의 생각과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내가 어찌 감히 그 분들의 참뜻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끼며 이장을 마감하고 읽은 분들의 용서를 빈다.

시 간

서윤석(68, 오하이오)

우리 모두
시간의 물줄기를
저 강물 따라 흘러가는 물길을 보라

한없이 많은 순간들이 이어져가는
흐르는 시간을 타는 우리를 보라
한순간 쉬이기도 떠나가기도 하는 우리

공평하고 영원하다는
시간의 흐름을 보라
도도한 그 물살에 밀려
한순간 만나기도 헤어지기도 하는 우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서로 소매를 스치고 가는 우리
설레이는 물결의 소용돌이 속에서
웃고 우는 우리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 따라
연젠가는 가벼워진 이 인연들이
기억조차 아련할 이 많은 인연들이
길던 짧은 이 모든 순간들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작은 그림자로 남겨지는
우리들이 타고 가는
시간의 물줄기를 보라

紙上法醫



급성침체공기증

Acute Stagnant Air Syndrome (ASAS)

노용면(55, 대뉴욕)

내가 뉴욕 주 로크랜드 카운티 법의 관실 책임자로 있을 때...

맨홀 길 건너에 있는 식당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그 사건이 발생한 날은 비가 오고 있었다...

그 맨홀은 넓이가 3m x 2m였고 깊이가 2.5m였으며, 구멍 위에 있는 철관 뚜껑의 크기는 90cm x 60cm였다...

이 사건의 두 피해자는 아주 건강한 젊은이들이었다. 한 사람은 수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신참이었고...

내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서, 소방서, 수도회사의 경영자 측과 노동조합측, 연방정부 직업위생부에 있는 과학자...

맨홀의 뚜껑을 다시 덮고, 사고가 생기기 전과 똑 같은 상황에서 한 달 동안 기다렸다. 그런 후 맨홀 속의 공기를 채집하여, 두 검사실에 분석을 의뢰했다...

벽과 천장을 긁어서 채집한 시료들을 현미경으로 검사했다. 물이끼와 곰팡이들이 잔뜩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나흘 지나니, 물 표면에서 20cm 위의 산소 농도가 19%로 올라갔는데,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아직도 정상보다 25배나 높았다...

병리의사가 두 피해자의 기도 속에 물이 들어 있음을 보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물에 떨어졌을 때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뜻할 뿐이다...

의 유무, 술이나 약물에 연관된 사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람이 작업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 사고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환경상황에 맞추어 부검 소견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조사를 끝마친 후, 나는 두 사람의 사망원인을 명시하기 위하여 급성침체공기증(Acute Stagnant Air Syndrome)이라고 하는 새 용어를 도입했다...

고용자장해보상부가 이 두 젊은이의 죽음이 급성침체공기증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고, 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불했다.

References: 1. Yong-Myun Rho: Industrial Diseases and Injuries, Medicolegal Implication,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78:2239, 1978. 2. Yong-Myun Rho: Acute Stagnant Air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and Pathology 7:46, 1986.

그 끔찍했던 즐거움

정유석(64, 남가주)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학창시절을 회고할 때 즐겁고 행복했던 나날을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지 오웰은 달랐다. 그는 1946년경에 '그 끔찍했던 즐거움'(Such, Such Were the Joys)이란 자서전적 에세이를 썼다...

이 에세이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된다. "내가 그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 한 두 주일 안에 침대에 오줌을 싸다. 당시 내 나이는 8살이었으니까 적어도 4년 전에 졸업한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그는 야노증이 옳은 행위인지 아니면 자기 통제 밖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을 모르고 행할 의사도 없는데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학교에서 정한 규칙들(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및 지적)을 실행하려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갈등은 19세기적 금욕주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속물근성과 호화로운 추구다.

성서에 의한 기독교 철학, 성에 대한 청교도적 태도, 근면, 성실, 학습, 교양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 지적

성숙에 대한 멸시, 도박 숭배, 외국인과 노동자들에 대한 멸시, 가난에 대한 병적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과 권력에 대한 추구, 또 이들을 세습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태도를 가르친다...

오웰에게는 그런 교육이란 사기 수법의 전수, 지식의 깊이를 무시한 채 이튼이나 해로우 같은 영국의 유명한 학교에 더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려는 정책일 뿐이다.

축구는 공을 차는 즐거움보다는 싸움에 불과하다. 경기가 아니라 승리에 대한 추구일 뿐이다. 축구광들은 소란스럽고 빠기는 학생들이며 약한 아이들을 발로 걸어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짓밟는다...

"내가 다시 교정에 돌아간다면 잉크에 얼룩진 벽에 둘러싸인 먼지 냄새가 가득 찬 큰 교실, 오랜 세월 송진 냄새에 배인 예배당, 답답하고 음습한 수염장 탈의실, 그리고 찬기가 도는 변소 냄새를 느낄 것이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 그는 이단 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혐오했고 외톨이가 되어 자신의 눈에 속물같이 비친 많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생 칠십

오대희(64, 커네티컷)

지난 8월 첫 주에 나는 아내와 함께 로스앤젤스로 날아가 작은 처남 집에서 칠순 잔치를 치르고 돌아왔다. 처음에 잔치 말이 나오자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지나겠다고 하니 서울에서 동서 내외가 커네티컷 우리 집으로 와서 오래 전부터 약속한 칠순 잔치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치러 주겠다고 장소를 정해 초대할 사람 수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오래 전부터의 약속>이란 1988년 새해를 맞으면서 나는 폐암과 뇌암을 진단받고 시한부 생명을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다. 다행히 신이 미소를 거두지 않아 나는 암의 생존자가 되어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나는 스물일곱 생일에 어머니가 유명을 달리 하셨다. 어쩌면 내가 태어난 날 어머니가 돌아 가셨을까 하는 불효가 유한이 되어 그 후로는 생일을 밝히지 않는다. 젊은 날 나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떠나시면 일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잔치가 무슨 잔치인가 하고 아무리 거절을 해도 약속은 약속이라며 서울에서 설득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 씩 걸려왔다...

되었다. 처남집 뒤뜰, 꽃으로 뒤덮인 가설무대에는 타오르던 여름해가 지면서 화려한 저녁노을이 맑은 하늘을 수놓는데 밤이 깊어가자 때마침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잔치무대를 북돋아 주었다. 특별히 주문한 생일요리를 즐기고 삼켄을 터뜨리며 카메라 앞에서 곁눈썹 찍게 포즈를 취하다가 해피 버스테이 멜로디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인생 70은 종심(從心)이라 하여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지만 나한테는 어렵도 없는 일이다. 그 동안 칠순 잔치 위원회(?)가 준비하고 결정한 안건에는 거부권은 그만두고 발언권조차 행사할 수도 없이 끌려 다니기만 했으니 말이다. 칠십이 되어서 하는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 아니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그러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기보다는 사람 눈치 보기가 더 어려운 처지이다...

하버드 LA에서 달밤에 체조하는 칠십 인생 배우노릇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이튿날 Yale 대학 명예교수 임명장이 배달되었다. 부총장 겸 Secretary가 <Professor emeritus> 증서를 보내면서 침부한 영광스런 은퇴를 축하한다는 서한을 읽고, 나는 과연 많은 의사의 생애를 이제 마감한다는 사실을 드디어 느끼기 시작한다.

수필로 풀어쓰는 신경생리학

ESSAYED NEUROPHYSIOLOGY



이원택(71, 남가주)

사람들은 신체의 모양이 다 다른 것은 물론이고 재주나 취미도 각양각색인데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답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사고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뇌의 활동이라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뇌의 같은 부분에서 같은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인가(?)

정신해부학에서 보니까 대뇌의 측두골 피질에 양쪽 다 손상이 오면 사람이 아주 종교적 철학적이 되고 성에도 초월하는 경우가 많고 편도를 자극하면 사람이나 동물이 아주 공포에 떨거나 사나워지곤 한다.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뇌의 정밀 검사를 받아 보라고 권하고 있음)

범위를 좁혀서 그 부위에 있는 뇌세포군 (nucleus) 또는 그 부근에 있는 신경전달물질의 분포 등을 조사했다니 같은 종류 또는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더 범위를 좁히고 또 좁혀서 세포 하나하나가 또는 신경전달물질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알아보자는 것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분자 생물학 (molecular biology)이라는 것이다.

결국 사람의 행동은 이와 같은 분자들이 어떻게 이동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나 국가의 생활양식이나 이념도 그것들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network를 쌓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면 이 분자생물학에서도 옛날에 공산당들이 잘 썼던 지식분자, 열성분자, 반동분자들은 없는가 한번 알아보자.

제1절: 작동 전위(action potential) 창문을 열어도

우리가 인지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일련의 뇌세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작동한다는 말은 쉬고 있던 뇌세포가 활성화 한다는 말인데 이때 동원되는 뇌세포의 수는 수백만 개일 것이나 편의상 한 개의 뇌세포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정신해부학에서 보여줬듯이 신경세포는 핵과 그 주위를 싸고 있는 몸통, 나뭇가지 같은 수상돌기들과 전깃줄 같은 축삭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에너지는 DNA가 들어있는 핵으로부터 나와서 축삭돌기를 통해 다음 신경세포의 수상돌기를 통해 다음세포로 전달된다.

DNA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포의 내부와 외부에 분포된 Na, K 등의 ion (이온)의 이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흥분되는 것을 정지 전위에서 작동 전위로 변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작동 전위가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필요한데 소위 공간지원 (spatial summation) 이라고 해서 이 뇌세포가 여러 군데서 자극을 받든지 또는 시간지원 (temporal summation) 이라고 해서 한군데서 연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야 축삭돌기의 초입에 있는 조그만 언덕 (axon hillock)을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언덕의 높낮이는 호르몬이나 전해질 또는 pH와 같은 주변 분위기에 따라 조정된다고 한다.

즉 axon hillock은 여인의 마음의 창과 같이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물심

양면으로 중단 없는 정진을 해야 하지만 그때그때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아주 화끈하게 밀어 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어떤 자극이 수상돌기를 통해 머리와 몸통으로 전달될 때 까지는 점진적인 analog 방식으로 전달되다가 돌쩌귀와 지렛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성기에 와서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폭발적인 digital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실제로 햄스터 실험에서 암놈의 사타구니를 꼬집으면 그는 등을 활같이 휘면서 성기를 노출시키는데 만약에 그놈이 배란기에라도 있으면 사타구니를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이상과 같은 성교할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가능성 (potential)을 열기 위해서는 행동 (action)을 취하고 볼 일이다.

제2절: 접합점 전달 (Synaptic transmission) 연인과의 대화

그러면 두개의 뇌세포가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가. 옛날에는 자극이 한 세포에서 다음 세포로 전달되는 것이 가느다란 전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알았는데 막강한 전자현미경의 출현으로 세포와 세포사이에는 육체적인 접촉이 없이 당신과 나 사이에는 널따란 저 바다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가 전달되려면 반드시 접합점(synapse)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갭(gap)을 건너가려면 기차에서 내려서 배를 타야 된다. 다른 말로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 즉 연인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 만지지 말고 말로 하라는 것이다.

축삭돌기의 종착역에는 수많은 창고들이 있는데 이속에 각종 신경전달물질이 저장되어 있다가 핵으로부터 명령이 오면 방출이 된다. 이 방출된 신경전달물질은 갭을 건너 그 대안에 있는 수용체(receptor)에 가서 달라붙는데 그 모양이 마치 열쇠와 자물쇠 구멍과 같이 찰떡궁합으로 꼭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다.

연인과의 대화에서 갈 길이 바쁘는데 속 터지게 한마디 한마디씩 해가지고야 언제나 신방을 차릴 것인가. 그래서 어느 날 남자가 갑자기 나는 너를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할 것이다"고 화끈하게 고백을 해 버렸더니 여자가 뿅 가더니 그 감동이 3주일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장기간 상승작용 (long term potentiation)은 기억력이나 학습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는 마치 나룻배로 일일이 나르던 신경전달물질을 큰 container에 실어서 ferry로 나르면 대안에 있던 수용체들의 숫자가 늘어남은 물론 남아돌아가는 신경전달물질이 전에 있던 세포로 돌아가서 사랑의 묘약(칼슘)을 더 많이 방출하게 하는데 이 칼슘이 접합점 후에 있는 세포를 자극해서 더 많은 수용체를 만들어 준다.

즉 신경세포간의 전쟁에서 이 칼슘이란 놈은 적군의 성 안으로 첩자를 투입해서 민중봉기를 선동하고 후방으로부터 지원병을 끌어 들이는 양수 결합을 쳐서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상승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는 혈중의 혈당량이 높은 것과 estrogen, 잠시 동안의 스트레스 등이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량의 술, 병균이 침입했을 때 면역체에서 방출하는 interleukin I, 저혈당 또는 장기간의 스트레스이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적당한 양으로 잠시만 지속되면 기분 좋은 스트레스가 되나 너무 많은 양이거나 또 장기간 지속되면 아주 괴로운 나쁜 스트레스가 되는데 디즈니랜드에 가서 뽕뽕이를 돌릴 때 얼마동안은 신이 나겠으나 그 뽕뽕이가 쉬지 않고 몇 시간간 계속 되면 고문도 아마 그런 고문이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기쁨조 dopamine을 너무 써먹으면 마침내는 dopamine이 고갈이 되어 고통이 뒤 따른다고 하니 소설 "객주"에서 신석주가 맹구법을 다했을 때 음탕한 기생을 하루가 멀다하고 들여보내 맹가의 진액을 몽땅 뺏아버리는 수법을 쓴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통증도 마찬가지로 간헐적으로 가해주는 어느 정도의 통증은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원' 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지압과 마사지에서와 같이 돈을 내고 통증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암만 짧은 스트레스나 통증이라도 그 양이 너무 지나칠 때는 비행기 추락할 때나 잔등에 칼침을 맞을 때처럼 여간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과흥분 독성 (excitotoxicity)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간질에서는 세포를 흥분시키는 칼슘이나 glutamate가 천정 모르고 치솟기 때문에 다른 세포를 잡아먹고, 중풍에서는 혈액 공급이 안 돼 이와 같은 흥분 물질을 빨리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고로 뇌세포가 사망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흥분의 절정에서 복상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만하면 왜 창조주께서 세포와 세포가 대화를 할 때 직접 선으로 연결시키지를 않고 접합점이라는 액체로 된 완충지대를 설정했는지 이해가 가는가(?) 너무 열이 올라갈 때는 fuse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연인과의 대화에서는 가끔 토닥거리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괜찮지만 폭력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단 뺨길기 뚫리고 수많은 선착장이 생겨나면 자연히 다량의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구가 아주 활성화 되는데 여자를 흥분 시킬 때도 찢끔찢끔 긁는 것보다도 아주 팍팍 찢러 버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온 칼슘은 접합점을 지나 다음 신경 세포로 물밀듯이 쳐들어가는데 이때 수용체는 거친 표면이 매끈매끈해지고 또 오랫동안 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신경전달물질이 착착 달라붙게 도와주고 있다.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선착장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갔다 대면 여자가 밧줄로 끌어당겨야 되듯이 남자가 여자를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함락당해 주는 것이다. 우리 뽕뽕 중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작사자야 말로 정신생리학을 통달한 사람이다.



제3절: 짜 맞추기 (Net-working) 세세의 비결

두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눈이 맞아서 대화도 하고 키스도 하고 또 찰떡궁합으로 접합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은 열심히 일을 해서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다. 보통 한 개의 신경세포는 만개의 수상돌기와 만개의 축삭돌기가 있는데 이것이 산지사방으로 뻗어나가 다른 신경세포들과 연결됨으로서 복잡한 network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정교하고 두터우냐에 따라서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식물의 세계에서 제일 네트워크를 잘하는 것을 지상에서 살아있는 물체 중에 제일 큰 세코이아 나무들인데 이들은 이웃들과 서로 뿌리로 연결되어 있고 줄기와 가지들도 서로 엉키어져서 공생공사를 하고 있다. 물론 동물 중에서 네트워크를 제일 잘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시다.

저자가 인생살이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형성을 잘 못했다는 것인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특히 현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튼튼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때 얼마나 넓게 얼마나 굵게 또 얼마나 두텁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는 여러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라미보다는 큰손들을 많이 만나야 하고 또 그들과 믿음만한 신뢰도를 쌓아 올리는 것으로 사업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필히 하여야 할 일이다. 그래서 모두들 지연, 혈연, 학연을 찾아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좌우간 인간이나 신경세포나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자기 자신을 남한테 알려야 한다. 신경세포의 사회도 인간사회와 마찬가지로 지가 얕만 잘 낚아도 아무도 알아주는 연놈들이 없으면 말짱 황이다. 그리고 세포들의 세계도 인간들의 세상과 마찬가지로 목소리 큰놈이 왕이다. 이때 신경세포가 자기 자신을 탄 세포들한테 알아달라고 하는 짓거리는 가히 목불인견이라 하겠다.

우선 지가 벌떡 일어나서 "에헴!"하고 청중(다른 세포들)을 조용히 시킨 후 (이를 lateral inhibition: 측면제어라고 함),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극적인 효과를 높이는데 중간 중간에 pause(휴식)를 취함으로써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를 연속적 병립 지원 recurrent collateral projection이라 함).

이는 연설이나 웅변을 할 때 필수불가결의 조건으로서 탄 사람들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 저자는 탄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분들의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 아까워서 억양이나 제스처에 아랑곳없이 그냥 우물우물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네트워크 형성의 첫 번째 단계에서 탈락되고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경의 네트워크를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각신경인데 이때 망막에 있는 한 시각세포가 한 개의 점을 보고 발작을 하면 그것이 후두골(occipital lobe)에 있는 시각 중추의 첫 번째 층에 한 점으로 인식이 되고 그 옆의 시각세포에서 들어온 점들이 차례차례로 일직선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한 개의 선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층층이 올라가면서 움직이는 선, 각도, 방향, 두께 등을 인식하는 세포층들을 (다음면에 계속)

쌍둥이 지구



허선행(64, 대뉴욕)

얼마 전에 8 쌍둥이를 낳아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다.

생명을 무엇보다 더 옹호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철칙으로 알고 있기에 우선 그들의 생명을 위협에서 구해 잘 키워 이 나라, 이 사회의 큰 인물이 되게 하도록 우리 모두 열심이 세금을 내면서 그들의 축복을 빌어왔다.

최근 그 여덟 쌍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며 그들의 친모나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는 뉴스에서 못 보고 못 들었기에 아예 잊혀진 사실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불현듯,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말하자면 지구도 쌍둥이의 하나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해 보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벌써 오래오래전부터 많은 우주 과학자들이 "지구의 형제"라 할까? 아니면 비슷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별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들 아시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조금만 예를 들어 본다면, Neil Armstrong이 1969, 7월 20일에 달에 착륙했었으니, 두 달 전에 40주년을 맞았고 일찍이 Galileo Galilei는 1607년에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달에 있는 산과 화산의 분화구를 관찰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소련이 미국보다 앞서서, 1959년에 그들이 만든 탐사기구로 달에 착륙 시켰었다.

이런 사실과 더불어 미국과 소련의

우주탐험경쟁은 치열했고 그 결과 수많은 획기적 업적이 있어왔으니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어졌다.

사실 일본도 두 강대국에 이어서 우주답사에 앞장을 서 왔으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우주선 발사에 끊임 없는 노력으로 세계무대에 오르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늘 앞장서서 달리는 우주 과학자들은 벌써부터 쌍둥이 지구가 은하계(우주)에 있다는 신념하에 꾸준히 찾아왔고 현재까지는 지구와 제일 비슷한 소위 "Second earth"라 할 만한 별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2007년에 발표되어 "Gliese 581"라고 명했고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20 Light years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한다.

이를 발견 한 과학자 중의 한 분은 그 곳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 했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 같다고 말 하고 있다.

이런 사실로 보아 머지않아 은하계에 있는 지구의 여러 쌍둥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 될것으로 믿으며 우선적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오고가고 하느냐? 하는 거리감이다.

어려서 우리가 마차타고 아니면 걸어 다녀야 할 때 '손오공'은 땅을 주름잡고 다녀서 하루에도 수 천리, 수 만리를 오 갈수 있다는 '우화'같은 이야기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듯이 우리 지구인들이 곧 우주를 주름 잡고 다니게 될 것으로 믿어본다.

이후에 생길 지구와 쌍둥이 지구간의 수많은 문제와 서로 더 많이 차지 하고 지배하려는 지구 자체국가들의 투쟁은 뒷전으로 두고 라도 우선 "지구도 형제가 있다"는 구호를 부르짖고 싶어졌다.



농담골목

양노원에 있는 할머니 한 사람이 아주 색다른 옷차림을 하고 복도에 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supersexy, supersexy."하면서 자기 옷차림을 자랑했습니다. 얼마 후 복도 끝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soup or sex? I want soup"라고 했습니다. (면)

아랍계 남자가 호텔에서 예약을 하면서 큰 침대가 있는 방을 달라고 했습니다. 접수인이 king-size bed는 없는데, queen-size bed도 꽤 크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랍계인이 "나는 마누라가 들인데"라고 했습니다. (면)

심리학교수가 정신건강에 관한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자, 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분 동안 미친 듯이 화를 내며 고향을 치다가 자리에 앉아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겠습니까?"

그러자 뒤에 있던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대답했다. "농구 코치입니다." (이덕승)

진달래

내 / 피라지가 비기 싹타고 / 갈라카모
내사마 / 더러버서 암 말 안코 보내 주꾸마,
영변에 약산 / 참꽃 / 황거석 / 따다 니 가는 길에 뿌려 주꾸마,
니 / 갈라카는 데마다 / 나둔 그 꼬슬 / 사부자기 / 삐대발꼬 가부래라.
내 / 피라지가 비기 시러 갈라카몬
내사마 / 때리 직이 뻘다 케도 안 울 끼다... (정정수)

유가는 언제 내리는 거여

유동팔이가 마을 버스를 탔다
종로에 오자 운전 기사가 이렇게 외쳤다.
"이가 입니다. 이가 내리세요" 그러자 몇 사람이 내렸다.
잠시후 운전사가 소리쳤다. "오가 입니다. 오가 내리세요"
또 몇명이 우루루 내렸다.
안절 부절했던 유동팔이가 운전수에게 다가가
"왜 이가 오가만 내리게 하는 하는 거요? 유가는 언제 내립니까?" (허선행)

젊은 여자와 재혼한 노인이 viagra 중독으로 급사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주장하기를 "죽은 것을 살리려다 산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찰스 리)

밑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강간입니다. (양)

62년 동기생들의 신선놀음



김명자 (오태요 62 동문부인)

2008년 3월 봄 라스베가스에서 의대 학술대회 참석차 62년동기생들의 골프 모임이 있었다.

다음 해의 모임은 시애틀, 모두가 4년 전 그 곳에 정착하신 박진수 동문을 지적하고 있었다. 예년과는 달리 일 년 반만에 좋은 달(month)을 택한 후 박진수 동문부부의 빈틈없는 준비로 우리 모두는 즐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여러 번 와 본 도시이지만 우선 시애틀의 맑고 깨끗한 공기, 속 시원하게 퍼져 있는 파란 바다와 우거진 상업수들은 마음에 정서를 마냥 안겨주는 듯 한 반가움을 주었고, 우리 방에 가자마자 전달 된 Mrs. 박의 자상한 Package에는 며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큰 물병 두 개, 개인용 Tropicana 오렌지 주스들과 작은 물병들, 각 가지의 breakfast bar, beef jerky, 손수 만드신 raisin bread, green tea bag, 그리고 시애틀의 명승지와 방문하기 좋은 여러 가지 책자들이었다. 첫날 저녁은 두 분의 호의로 Blue Ginger에서 은대구찜과 매운탕으로 부터 시작 되었다.

다음 날인 9일 수요일은 Bremerton Ferry를 타고 Puget Sound를 한 시간 이상을 간 후 또 차로 20여 분 갔을까 Trophy Lake Golf Course였다. 여러 가지 운동에 뛰어나신 이용길 동문부부께서 마지막 순간 건강으로 인해 취소를 해서 모두가 서운한 마음을 안고 티오프를 하게 되었다.

몇몇 부인들은 골프장으로 향했고 Mrs. 민, Mrs. 여 그리고 나는 아름다운 경치와 폭포를 내다보면서 커피를 앞에 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벌어졌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고, 우리 안에서만 이리저리 말고 나가서 좋은 바람이나 쏘이자고 club house를 나왔을 때는 우리의 golfer들이 18 홀을 끝내고 들어오고 있었다. 너무들 했지. 우리들은 거의 4시간 동안이나 이야기 속에 빠져 들어 있었던 것이다.

오늘 저녁도 역시 박 동문부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옆에 Bill Gates가 살고 있는지 기막힌 전망을 가진 넓은 유리 창문으로 둘러싸인 저택에서, 며느님의 정성 담긴 Prime Rib과 파스타와 씨푸드는 프로급을 능가하였고, 최고급의 와인은 Microsoft에 적을 두신 아드님 마이클이 서브하고 있었다. 에퍼타이저는 물론 디저트까지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다음 날 일찍 타타임때문에 더 마시고 싶은 와인을 포기하고 일어나는 남자분들의 얼굴에는 미련이 잔뜩 남아있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덟 분이 6명을 counting 하고 있었으니까.

10일 목요일도 완벽에 가까운 날씨였는데 New Castle Golf Club에서 골프를 마친 후에는 이상무 동문부부의 treat이 있었고, 우리들은 Glass Museum 을 방문 했는데 몇 년 전 오마하 사람들을 감명 시켰던 David Chihuly의 작품이 압도적인 듯 했고 시애틀의 아들로 추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Seattle은 자연 자원도 풍부했지만 먹는 문화도 상당히 발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사람들도 많은 곳이니 Blue Fin이란 뷔페 식당에서 원 없이 여러 가지 스시와 한식까지도 즐길 수 있었다.

세 번째 날은 Mrs. 여가 고사리를 사러 간다가에 나도 따라 나섰는데 고사리 파는 사람과 언어 소통이 잘 못되어 장소를 찾느라 헤매었고, 남편들이 있는 Echo Falls Golf Course를 찾아 한참 헤매다가 다행히도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민경환 동문부부께 맛있는 점심을 감사를 드렸다.

그 후 Boeing 비행기 Complex로 갔는데 물론 그 큰 규모는 나의 작은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747이나 777같은 큰 비행기 10대 이상을 한 건물 안에서 조립이 가능할 뿐더러, 지름 50인치 정도의 Light fixture가 2,000-3,000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팝소사!) 실은 1,000,000개가 있으며 거기서 나오는 열과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로 난방 장치가 필요 없단다.

비와 안개가 많아서 자살율이 가장 높다는 도시건만 Microsoft, Boeing, Star Bucks 등의 거대한 산업들이 일어나고 융성하는 것을 보면 이 도시에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을 것 이라고 내 나름대로 추측을 하면서 우리는 갈비 집으로 향했는데, 이번에는 Dr. & Mrs. 정께서 지갑을 여시니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저 '고맙다'는 말 이외의 더 좋은 표현 방법은 찾을 수가 없었다.

4일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빨리 지났고 비록 45 파운드는 늘었을 망정 재미있고 보람 찬 모임이었다. 조용히 집에 앉아 이글을 쓰면서 62년 동기님들께 "다음번에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 모두 참석 하세요" 라고 진심으로 전하고 있다.

오랫동안(나의 남편인 경우 46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아들 딸 잘 길러 놓았으니, 잠시나마 날씨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옛 친구들과 인생을 논하고, 골프 치면서 운동은 물론 비타민 D도 섭취하고, 생애에 한 번밖에 없을 곳들을 방문하고, 온갖 음식들 맛있게 먹고 마시니 이것이 신선놀음이 아니고 무엇이리요.



<전면에서 계속> 연결시키면 마침내 할머니 얼굴 모습과 할아버지 얼굴 모습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버드 대학의 Hubel이나 Wiesel은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로는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의 물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 단위(trillion)가 아닌 경 단위(zillion)의 뇌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약삭빠른 사람이 "그게 아니고... 다른 network에 속한 신경세포들도 서로 중복해서 이때는 이 일을

하고 저 때는 저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할머니 얼굴과 할아버지 얼굴을 구별하려면 옛날 옛적의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을 해마(hippocampus)에서 가져와야 되고 또 할머니 냄새 할아버지 냄새가 다르다는 것은 후각돌기(olfactory bulb)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약삭빠른 사람은 아직도 노벨상을 못 받았다. 아마도 네트워킹 할 때 지조 없이 이놈 저년 다 건드렸기 때문이리라.

Henry 6세(VI), 2부

이 극은 헨리 6세가 불란서의 Anjou 공작의 딸인 마가렛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젊고 아름답고 몸가짐이 우아한 마가렛을 아내로 맞이하는 왕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다. 비록 지참금도 없이 또한 영국 소유지인 Maine과 Anjou를 불란서에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왕비를 받아들였으나 헨리 6세는 행복하기만 하였다. 그러나 신하들은 이에 불만을 보인다. 특히 York가의 두목인 요크 공작(Richard)은 이에 분개하여 그의 왕위 찬탈의 의도를 더욱 새롭게 한다. 그는 아버지의 반역죄로 작위와 재산을 박탈되었던 것을 왕의 사면으로 다시 찾은 입장에 있었으나 그의 야심은 굳어지기만 했다.

Lancaster가(red rose)내의 신하들간에도 반목과 적의가 끊고 있었고 여기에 왕비까지 가담하여 젊은 왕은 무척 고심한다. 왕이 신임하고 언제나 충성을 다하던 숙부이며 섭정인 Gloucester 공작이 같은 Lancaster가의 중신 Suffolk 공작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또한 이 일에 가담했던 추기경은 별안간에 죽어버리고 Suffolk는 왕에 의해 유배되었다가 해적의 손에 죽는다. 요크 공작은 적의 당파내의 살육전에 희열을 느끼면서 자기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때마침 Ireland에서 반란이 일어나 요크 공작은 이를 진압시키는 임무를 맡아 군대를 일으켜 Ireland로 출전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 시기에 또 하나의 민간 반란이 일어난다. 어느 마을에 Jack Cade라는 자가 자기 아버지가 왕가의 후손임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나선다. 자기 아버지가 유모의 잘못으로 거지여자의 손에 의해 민가에 떨어져 자라났다고 주장한다. 못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백정 등 다른 노동자들과 공모하여 지식층에 반항하여 런던으로 쳐들어간다. 한 백정은 "The first thing we do, let's kill all the lawyers." 라 부르짖는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양피지(parchment)에 서명을 한번 하고 냈더니 자기 권리를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또한 한 서기가 문서에 'Emmanuel' 이라고 서명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 유식하다고 하여 그를 처형해 버린다.

이 민간 반란은 왕의 권유로 폭도들이 항복하여 왕의 사면을 받고 Cade는 도망쳤으나 기아상태에서 해매다가 한 애국시민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왕은 한탄한다. "나는 요람에서 기어나오자마자 9개월 나이에 왕이 되었다. 신하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내가 신하가 되고 싶은 욕망에 미치지 못하리라."

이제는 장미 전쟁이 간단없는 유혈전으로 접어들다. Ireland에서 돌아온 요크 공작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Saint Albans 근교에 주둔하고 있던 왕당의 거처로 진입하여 왕을 위협한다. 요크 공작은 왕의 심복인 Clifford 경을 격투 끝에 죽이고 공작의 아들 리처드는 왕당의 중신인 Somerset 경을 죽인다. 왕과 왕비는 런던으로 피신한다. 요크 공작의 일당도 서둘러 왕을 앞질러 런던으로 옮겨간다.

Henry 6세(VI), 3부

요크 공작은 그의 아들 에드워드, 리처드와 충실한 부하 Warwick, Montague들과 같이 벌써 왕궁에 들어와서 의기양양하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헨리 6세가 대노하여 요크 공작을 꾸짖으며 물러나기를 명한다. Warwick와 왕의 신하들 사이에도 격론이 벌어진다. 이에 맞서 요크 공작은 헨리 6세의 할아버지인 헨리 4세

가 리처드 2세의 왕위를 찬탈했음을 일컬어 헨리 6세의 왕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실력 대결을 하겠다고 위협한다. 절충책으로 헨리 6세는 요크 공작이 헨리 6세의 후계 왕이 되는 조건으로 헨리 6세 자신은 왕위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는 합의하에 일시적인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 처사에 격분한 왕비 마가렛과 왕자 에드워드는 요크 공작과 그 아들들에게 무력 투쟁을 선언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통하여 본 영국 왕실의 비극 (3)

정의 철(61, 후로리다)



아버지를 잃은 젊은 Clifford 경이 아버지의 죽음의 복수로 요크 공작의 넷째 아들인 어린 Rutland를 잡아 무참히 칼로 찔러 죽인다. 또한 왕비의 군대가 요크 공작을 사로 잡아 종이 왕관을 씌워주고 갖은 조롱과 욕설을 퍼부우면서 그의 어린 아들의 피에 젖은 수건을 보여준다. 슬픔에 울부짖는 요크 공작을 Clifford 경의 아들이 칼로 찔러 죽인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요크 성의 성문에 안치한다. 그러나 전세가 바뀌어 요크 공작의 아들들이 Warwick의 영도 아래 승리를 거둔다. Clifford의 아들은 전장에서 전사하고 왕비는 왕과 함께 도피한다.

요크가의 일당은 승전을 자축하고 살해된 요크 공작의 장남인 에드워드의 대관식을 위해 런던으로 간다. 에드워드는 에드워드 4세가 되고 동생 조오지와 리처드를 각각 Clarence 공작과 Gloucester 공작으로 승격시킨다.

왕비 마가렛은 친정인 불란서로 가서 헨리 6세와 우정이 두터웠던 Lewis 왕에게 원조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Warwick가 에드워드 4세의 명을 받고 루이스 왕의 누이동생 Bona에게 에드워드 4세의 구혼을 신청하려 와 있었다. 이에 루이스 왕과 보나는 적극적인 환영의 응답을 표명한다. 그러나 곧 영국에서 사자가 와서 에드워드 왕이 번심하여 영국의 한 귀족의 미망인인 엘리자베스(of Woodville)와 결혼하였으므로 보나에게 구혼을 철회한다는 전갈이 왔다. 이 번심으로 난처해진 Warwick는 분개하여 에드워드 4세를 버리고 마가렛 왕비와 헨리 6세에게 충성을 다할것을 맹세한다. 불란서 왕 루이스도 5천명의 군사를 영국에 출전시켜 헨리 6세의 왕위를 되찾을 것을 마가렛 왕비에게 약속한다.

이리하여 영국에는 두 왕들 간의 내전(civil war)이 계속된다. 한때 에드워드 4세가 Warwick에 의해 사로잡혀 주교의 저택에 감금되었으나 동생 리처드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요크 성에 돌아온다. 전세가 역전되어 헨리 6세가 리처드에게 잡혀와 런던 타워에 감금된다. Coventry 전장에서 에드워드 4세와 리처드는 다시 돌아온 조오지(이때까지는 형제를 버리고 헨리 6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음)의 도움을 받아 헨리 6세의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를 거둔다. Warwick 형제가 전사하고 헨리 6세의 아들(에드워드)은 사로잡힌다. 에드워드 4세와 그의 동생들인 리처드와 조오지는 마가렛 왕비의 목전에서 어린 왕자(에드워드)를 차례로 칼로 찔러 죽인다. 마가렛 왕비의 슬픔과 저주의 울부짖음은 하늘을 찌른다.

헨리 6세는 런던 타워에서 리처드가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 당한다. 리처드는 승리의 쾌감을 만끽하고 이제는 어떤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장래에 에

드워드 4세의 다음으로 자기가 왕이 될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 조오지도 죽일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헨리 6세를 제거한 에드워드 4세는 승리를 자축하고 왕좌에 오르기 위해 다시 런던으로 간다. 그는 엘리자베스 왕비에게서 새로 태어난 아들을 자기의 정당한 왕위 계승자로 선포한다. 리처드는 이 어린 조카인 세자와 입마춤을 하면서 유다가 주 그리스도

를 배신하기 전에 그에게 입마춤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Richard 3세 (III)

이 극은 리처드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그는 헨리 6세를 죽이고 Lancaster가(red rose)를 쳐 이기고 형 에드워드 4세를 왕좌에 오르게 하여 평화를 찾은 것을 자축하면서 불구의 몸을 갖었고 못생긴 자기이지만 에드워드 4세 다음으로 왕위를 오를 것을 자신에게 다짐한다. 첫째로 둘째 형인 조오지를 제거할 것을 계획한다. 그는 왕도 모르게 왕의 뜻이라고 하여 조오지를 투옥시켜 놓고 조오지에게는 현 왕비와 왕비의 형제들의 음모로 G자로 시작하는 이름의 형제의 손에 왕위의 계승이 끊어질 것이라는 마법사의 말을 왕이 믿고 조오지의 이름을 바꿀 의도로 그를 런던 타워에 보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면서 자기가 힘을 다하여 조오지를 구해줄 것을 약속한다. 그러면서 리처드는 어리석은 조오지가 곧 죽게될 것을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띄운다.

헨리 6세의 장례의 장면이 나온다. 헨리 6세의 아들의 젊은 미망인 Anne이 시아버지 헨리 6세의 상여를 따라 오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와 자기 남편을 죽인 리처드를 저주한다. 리처드는 이에 맞서 오히려 Anne에게 갖은 감언이설과 구애 행각으로 구혼에 성공한다(Anne은 후에 리처드의 처가 되었음 - 필자 주). 리처드는 헨리 6세의 아들 에드워드가 용모가 수려하였고 훌륭한 성품을 지녔던 것에 비하면 불구이며 못생긴 자신의 정략적인 구혼에 영합하는 여자의 마음을 내심 비웃는다. 세월이 지나 에드워드 4세는 병이 들어 죽음이 임박한 병상에서 근친과 신하들을 모아 놓고 그들간의 화목을 도모하려고 한다. 특히 왕비의 전 남편에서 난 두 아들과 왕의 둘째 동생 리처드 간의 화해를 촉구한다. 이들은 왕에게 서로의 우애와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왕의 첫째 동생인 조오지가 살해당했다는 비보가 들어온다. 리처드가 무고한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형 조오지를 하수인을 시켜서 죽인 것이다. 리처드는 당장 이것이 왕비와 그녀의 친가족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에드워드 4세가 죽은 후에 왕비의 친가족들을 이를 구실삼아 모두 처형시켜 버린다.

에드워드 4세의 어린 세자(에드워드 5세)의 대관식을 리처드의 부하들이 의논하고 있었다. 리처드의 야심을 모르던 의전대신 Hastings는 에드워드 5세의 즉위를 위하여 그의 정성을 다할것을 맹세한다. 이를 들은 리처드는 원래 불구였던 자기의 팔이 Hastings의 정부가 마법을 부려 위축시켰다는 죄목으로 그의 목을 베게한다. 리처드

는 어린 에드워드 5세와 동생을 대관식 한다는 명목으로 런던 타워에 이송시켜 놓고 Buckingham 공작의 도움을 받아 왕위찬탈을 위한 계획을 추구한다. 그는 또한 죽은 에드워드 4세는 아버지가 불란서에 출전했을때에 태어난 사생아라고 주장하여 자기 어머니의 부정까지 조작하였고 에드워드 4세의 결혼이 불법이며 따라서 세자 에드워드 5세의 왕위 계승이 부당하다는 이론을 버킹햄 공작을 통해 선포하여 자기의 왕위 계승권을 정당화 시킨다.

다음 단계로 리처드는 세자 에드워드 5세를 죽일것을 버킹햄에게 명하였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도피하였다가 체포되어 처형된다. 리처드는 다른 신하 (James Tyrrel)를 시켜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을 죽여버린다.

유배되었던 마가렛 왕비(죽은 헨리 6세의 비)가 나타나서 죽은 에드워드 4세의 미망인 엘리자베스와 요크 공작의 미망인(에드워드 4세와 리처드, 조오지의 어머니)에게 지난날의 자기의 저주가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음을 일컬어 준다.

마가렛은 남편 헨리 6세와 아들 에드워드를 죽였던 리처드가 자기 형을 죽이고 두 왕자를 살해하는 등 두 미망인은 마가렛 자신의 저주의 응보를 잘받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이에 맞서 요크공작의 미망인은 자기의 불운에 기뻐하지 말라고 타이르면서 자기도 마가렛 왕비의 불행을 물었다고 말해준다. 두 왕자를 잃은 왕비 엘리자베스는 리처드에게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다. 그러나 오히려 리처드는 이에 맞서 왕비의 딸에 대한 열렬한 구혼을 청함으로써 왕비의 마음을 돌려놓는다. (이 왕비의 딸 Elizabeth of York는 나중에 헨리 7세의 비가 된다.- 필자 주)

리처드가 왕위에 올라 리처드 3세가 되었으나 악행과 실정으로 백성의 원성을 산다. Henry Tudor(모계 통한 Lancaster가의 왕손)가 반란을 일으킨다. 고매한 인품과 공정한 처신으로 국민과 귀족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그는 리처드 3세의 폭정과 악행에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리처드 3세의 군대와 Henry Tudor의 군대가 Leichester 교외에서 다음날의 전투에 대비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 밤이 되어 자고 있는 리처드에게 과거에 그에 의해 죽음을 당한 못 영혼들이 나타나서 내일의 전투를 예언한다. 다음날 Tudor 군이 리처드 왕군을 대패시키고 Tudor가 단독 대결에서 리처드 3세를 죽이고 승리를 거둔다. 이리하여 30년에 걸친 유혈의 장미전쟁은 끝이 나고 Tudor는 새로운 왕조(Tudor dynasty)를 시작하여 (1485) 331년에 걸친 Plantagenet 왕조를 마감시켰다. 이 Henry Tudor는 Henry 7세가 된다.

Henry 8세 (VIII)

이 극은 Plantagenet 왕조의 왕위 계승문제나 찬탈에서 야기되는 비극과는 달리 Tudor 왕조의 둘째 왕인 Henry 8세의 왕비 Katherine의 폐비와 Anne Bullen(또는 Boleyn)과의 결혼과 그녀가 낳은 딸 Elizabeth (후에 Queen Elizabeth I)의 영세식 등 왕 자신의 도덕성과 정치력을 다룬 극이다.

헨리 8세는 미망인이 된 형수 캐더린을 왕비로 삼고 있었으나 한때 캐더린의 시녀였던 Anne을 사랑하게 된다. Anne은 존경하는 왕비를 배신하고 자기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았으나 왕의 사랑을 거역할 수 없었다.

헨리 8세는 딸 Mary를 불란서의 공작(Duke of Orleans)과 결혼시키려 했으나 형수를 아내로 삼은 자기의 결혼의 불법성 때문에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으며 부정한 결혼 때문에 아들의 잉태가 되지 않는다는 <다음편에 계속>



휴가, 관광, 여행

이철남(64, 남가주)

내 생애에 배낭여행으로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한 달간의 남아프리카, 보스와나, 나미비아 여행을 10월에 계획해 놓고 그 준비로 척추 디스크 수술을 7월에 과감히 받았다. 배낭여행이 아니면 그냥 견딜만한 척추 디스크였지만 아프리카 오지에서 천막생활을 하면서 배낭 메고 헤맬 것을 생각하고 단단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다. 나이 70에 배낭여행은 무엇이고, 더구나 아프리카 오지에서 천막치고 배낭 메고 다닌다니 이 무슨 희귀 망측한 일이나? 더구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척추수술까지 받았더니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금은 그 척추수술 회복기간으로 집 안에만 꼼짝없이 박혀 6주를 지나다 보니 배낭여행은 커녕 수술 받은 자체가 후회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 척추가 빨리 회복되어서 배낭을 메고 아프리카를 헤맬 것을 생각하니 기대감 또한 부풀어 오른다.

여행이 무엇인지 더구나 배낭여행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 좋다고, 직장도 조기은퇴하고(Kaiser Anaheim, So. Cal.) 배낭 메고 세상을 헤맨 지 70년, 직장을 다니면서 여행한 것을 합하면 30여년이 된다. 이 세상에 나라라고 이름 붙은 곳이 약 240여 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 다는 못가더라도 그 반(120 나라)은 돌아보아야지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는데 이번에 그 소원성취에 접근하게 되는가 보다. 여름 잡아 110 나라는 이미 돌아왔고 이번 4 나라(남아프리카, 나미비아, 보스와나, 잠비아)를 합해 120 나라에 육박하게 된다. 그러나 다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100 나라는 120 나라는 그 숫자가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이 중국이나 소련 같은 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카리비안의 작은 섬나라 같이 작은 섬 하나로 나라를 이루는 곳이 있다. 중국이나 소련 같은 나라는 수십 번을 가 보아도 다 보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섬나라는 반나절 구경으로 충분한 곳이 있다. 숫자가 뭐가 중요하랴? 기록 남기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즐기기 위함이라면 숫자 세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도 80쯤 세고 중단하고 말았다. 중국은 5번, 소련은 3번 가 보았지만 소원 같

아서는 중국 50번 소련 30번도 더 가고 싶을 뿐이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니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감이 커진다. 여행 중에 객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바람직한 죽음이라고 늘 말해 왔지만 막상 그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 그러기 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나의 여행버릇을 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여행기를 기록해서 책으로 내든가 가사로 내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고 권유하지만 그럴 때 마다 나오서는 "그 많은 여행기 책들이나 여행안내서, 직업여행자들의 기록들이 책방마다 도서관마다 펍펍 차 있는데 내 기록 하나가 무슨 도움이 되며 누가 읽을 것인가?" 하고 일축하고 말지만 그 이면에는 내대로의 숨은 이유가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글로 방대한 내용으로 글을 써 놓아 보아야 내가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100분의 일도 표현 못할 터인데 어디 감히 건방지게 쓸 줄도 모르는 글로 읽는 사람들을 우롱할 것인가? 그리고 또 가끔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여행 방문기들을 보는데 그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이 있다. 여행기 중에는 한번 딱 가보고, 그것도 단체로 여행사의 안내로 순회해 보고 그 지방의 전문가인양 여행기를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기 자랑으로 밖에 안 보인다. 그 지방에 대한 사전 준비와 계획 없이 남 따라 안내자의 설명만 듣고 즐겼으면 그만이지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양 신문에 잡지에 떠올리는가? 행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나의 숨은 이유 중 하나이다.

여행, 여행하지만 여행 방식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음을 보게 된다. 사람마다 다 자기 취향에 맞게 여행을 하지만 크게 나누어 여행(travel), 관광(tour), 휴가(vacation)로 나누어 보았으면 한다. 이 셋은 같은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아 앞으로는 구분해서 쓰고 서로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 휴가(vacation)는 그 말대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군데 정착해서 며칠 지내며 즐기는 것이고, 관광

(tour)은 특별관광지에 전문가나 현지인이 미리 준비해서 이에 따라 설명을 듣고 순회하는 것으로 관광회사를 통해 여행하는 패키지여행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행(travel)은 체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실제에 가까운 것으로 배낭여행이 그 대표적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큰 단체여행이 아닌 몇몇 사람들의 나름대로 스케줄과 목적을 가지고 하는 여행이 되겠다. 취향과 건강상태, 비용 그리고 준비기간, 목적에 따라 그것이 휴가가 되느냐, 관광이 되느냐 여행이 되느냐가 결정 되겠지만 휴가를 가고도 여행을 갔다고 하거나, 관광을 가고도 여행을 갔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보통의 경우 여행을 가는 경우 그 여행을 끝난 후 그 여행에서 회복키 위해 휴가가 따로 필요한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우 휴가를 즐기는 사람은 여행을 싫어하고, 관광을 즐기는 사람은 여행을 하는 사람을 이해 못한다.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오지에서 병까지 들어가며 해매느냐? 그 반면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휴가나 패키지 관광을 가장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로 꼽는다. 한참 내가 sailing(돛단배)에 빠져있을 때 순풍에 돛을 달고 바다 한 복판을 흘러 가다가 power boat(모터보트)가 옆으로 지나갈 때 마다 경멸하곤 한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motor cycle(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끼리도 speed bike이나 cruise bike 나에 따라 차별을 두고, 바둑 두는 사람과 장기 두는 사람을 구별하듯이, 또 요즘은 연속극에서 포도주 마시는 사람과 소주마시는 사람을 구별하듯이 여행자들도 휴가를 즐기는 사람(vacationer), 관광객(tourist), 여행자(traveler)들로 구별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말 할 것도 없이 여행자(traveler)이다. 배낭 하나 메고 배낭 속에 나침반과 지도, 그리고 여행자의 바이블 'lonely planet'을 넣고 정처 없이 오지를 헤매는 내 모습을 이제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니카라과 산골 동네,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나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길가 카페에서 혼자서 맥주를 마시는 내 모습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앞으로 여행자의 신분을 접고 싫어하던 관광객의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120개국 방문의 의미가 별로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열려와 아쉬움이 불안감과 더불어 내 마음을 혼돈다.



강가에 서서

신영철(59, 메릴랜드)
김진호(61, 서울)

더럽혀진 이 땅을
깨끗이 씻어 내리는 강물
내 마음에 아직도 남은
기름때도 말끔히 씻어 가거라

저 멀리 심심산천에서
흐르며 흐르며 지출 대던 너
저 옛날 내 고향에서
뒹놀며 자라며 지출 대던 나

내가 너를 못 붙잡고
네가 나를 못 붙잡으니
이제 우리 함께 손잡고
나직이 노래 부르며 가자



090909

이한중(65, 미시간)

이천 구년 구월 구일
영원한 시간의 한 점, 한 순간,
인류역사의 슬픈 날들의 이름 없는 어느 하루,
인간이 만들어낸 그 숫자들의 백년에 한 번씩 오는,
무의미한 우연들의 맞출, 그러나
우리 인간사들이 모두
그러한 것 아닐까?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살아가다
우연히 떠나버리는것 아닐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던가?
우연히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받고 자라나서
우연히 배우자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연이 필연이 되는 것,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대 들어가서
우연히 좋은 친구들 만나
우연히 수년 같이 지내다보면
우연이 필연이 되는 것.

우연은 필연이 되고
필연은 우연이 되고
무가 유가되고
유가 무가되는 것,
필연은 인간역사를 만들고
언젠가는 그분, 창조주의 뜻에 따라
인간역사는 우주의 팽창세계로,
우연으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

이천 구년 구월 구일
이 우연의 하루, 한 순간 한 순간을,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무한한 힘으로,
필연의 하루,
필연의 한 순간 한 순간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귀중한 하루로, 한 순간 한 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아닐까?

〈전면에서 계속〉 것을 구실삼아 현 왕비를 폐하고 Anne과의 결혼을 추구한다. 왕은 카톨릭 신봉자로 교황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혼 수속이나 불명예스러운 폐비선언을 하는 대신 Canterbury 대주교인 Wolsey 추기경과 교황의 대사인 Campeius 추기경의 도움으로 캐더린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시도했으나 그녀의 완강한 거부로 결혼 무효라는 법적형식으로 그녀를 폐비시키고 Anne과의 결혼을 성취한다. 추기경 Wolsey는 왕의 심복으로 왕의 신임과 권한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는 왕으로 하여금 캐더린을 폐비시키고 불란서의 왕의 누이와 결혼하도록 일을 추진시킨다. Wolsey는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이며 스페인 왕인 캐더린의 조카의 아들(great nephew) Charles 5세가 그에게 archbishop of Toledo 직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풀이로 캐더린과 왕과의 이간질을 시작하였으며 자기의 권좌를 이용하여 왕권의 도용과 재산의 축적을 도모해

왔다. 또한 교황청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교황직을 꿈꾸었으며 Henry 8세와 Anne Bullen과의 결혼을 막으려고 시도한다. 이 사실이 자신의 실수로 그동안 치부한 재산목록과 함께 교황청에 보낼 서신이 왕의 손에 들어가 자신의 죄과가 폭로된다. 그는 대천사의 직에서 마왕(Lucifer)의 직으로 떨어진다. Wolsey는 자기의 과오를 누우치며 속세의 헛된 미관과 영예(vain pomp and glory of this world)를 증오한다. 그는 자기의 제자인 Thomas Cromwell에게 부기와 권세의 덧없음을 말해주면서 명예에 대한 야심을 버릴것을 충고해 준다. Wolsey가 물러나고 Thomas Cranmer가 Archbishop of Canterbury로 임명된다. 왕은 Anne의 대관식을 거행한다. 캐더린은 병이 들어 죽음이 임박해 옴을 느끼면서 때늦게 찾아온 조카의 아들인 신성로마제국의 황제(Charles 5세)의 대사를 맞는다. 캐더린은 대사를 통해 헨리 8세에게 자기의 축복을

전하게 하고 그들 사이에 난 딸(Mary)의 장래를 부탁하고 지금은 사라진 자기의 행운을 바라고 품과 마음을 받친 남편 시종들을 잘 보살피고 즐거움을 부탁한다. 한편 왕은 새로 임명된 대주교 Cranmer가 완강한 귀족 신하들의 모함에 빠져 재판을 받고 런던 타워에 투옥될 위험에 처해있을 때 왕의 Ring을 그에게 위탁함으로써 그를 지지하고 결연히 그를 옹호하고 무죄를 선언함으로써 화해를 이룬다. 왕은 Cranmer에게 Anne에게서 태어난 딸 엘리자베스(후에 Queen Elizabeth I)의 세례식에 대부(God father)가 되어줄 것을 부탁한다. 이와같이 헨리 8세는 그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했다. 또한 이 극을 통하여 보면 캐더린과의 결혼 무효화나 anne과의 결혼에 대하여 왕은 Vatican 교황청의 반대를 받지않고 오히려 대사인 Campeius 추기경의 도움을 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Korean-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th Annual Convention & Scientific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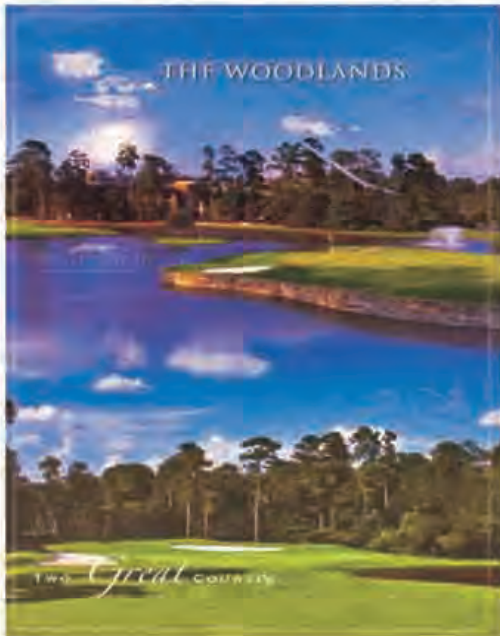
December 4 ~ 7, 2009

J. W. Marriott Hotel, Houston, Texas

“친애하는 서울 의대 동문 여러분께,

금년도 미주 한미의학협회(KAMA) 회장인 66년도 졸업생 김의신입니다. 제가 서울 의대를 대표하여 회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금년도 연례 학술대회에 여러분께서 참석해주셔서 저와 서울 의대의 기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1.5 내지 2세 한국계 의사들이 만 명이 넘게 각처에서 우수한 업적을 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KAMA에 network system이 없어 누가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뭉치기만하면 아주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의과 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우리 한인 교포 환자들을 전문 의사 회원들에게 의뢰하며 우리 회원 및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의사들의 연수 및 연구를 도와 주며 지역 사회 교민들의 건강 교육과 의료 봉사를 통해 우리 한국 민족의 우수성, 근면함 그리고 봉사내지 희생의 정신과 전통을 후손 만대에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0 여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 Houston 중심지에 있는 shopping center (galleria I-IV)에 있는 JW Marriott Hotel 에서 12월 4일부터 7일까지 모임이 개최되는데 우수한 scientific program이 있습니다. Houston은 미국에서 4번째 큰 도시이고 최근 가장 잘 나가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를 가진 medical center가 있고 250개가 넘는 기름 공장 및 연구소와 NASA의 연구소, 훈련소 그리고 space ship 조정실이 있습니다. 면적 600 square mile을 가진 휴스턴 안에 200개가 넘는 골프코스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3 만 명의 동포가 살고 있어 한국 미 서남부 지역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일기가 San Diego의 일기와 비슷합니다. 미국의 장래를 보려면 이곳으로 가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큰 건물이 거의 새것입니다. 평생에 아마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 이번엔 꼭 오셔서 저와 KAMA를 도와주시면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만나 뵈을 때까지 가내 모두와 함께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cellent Scientific & Social Activities:

- Recent advances in oncology, cardiology, neurosciences and sport medicine
- Display of art works by members
- Visits to the world's largest Texas Medical Center, NASA and oil refinery facilities
- Arrangement of several good golf courses
- Potential golf clinics & lecture by PGA player, K.J. Choi
- Visits to the Museum of Health & Medical Sciences and other museums including Children's museum
- Visit to the largest church (Lakewood with Rev. Jo Osteen) in the U.S.A.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